

[2019년 서울시 7급 국어 영역별 출제 현황]

대단원	소단원	문항 수
문 법	형태론	3
	문장론	1
	의미론	1
	어문 규정	5
	중세 국어 문법	1
어 휘	소 계	11
	한자 성어	1
	한자어	1
비문학	소 계	2
	사실적 독해	1
	추론적 독해	3
문 학	소 계	4
	현대 문학	3
	소 계	3
합 계		20

문 1.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훤다[할따]
- ② 밭게[밭 : 께]
- ③ 엷거나[얼꺼나]
- ④ 맑고[막꼬]

[정답] ④  
[정답 풀이]  
맑고[막꼬](x) ⇨ 맑고[말꼬](○):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맑고’의 표준 발음은 [막꼬]가 아니라 [말꼬]이다(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  
[오답 풀이]  
① 훤다[할따]: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0항).  
② 밭게[밭 : 께]: ‘밭’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0항, 다만).  
③ 엷거나[얼꺼나]: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392쪽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문 2. 밑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관형절에는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이 있는데, 관형절 내에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고,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지 않으면 동격 관형절이 된다. ③의 밑줄 친 ‘영수가 애쓴’은 관형절인데, ‘영수가 애쓰다’와 같이 성분이 생략되지 않고 다 나타나 있으므로 동격 관형절이 된다. 나머지는 모두 관계 관형절이다.  
[오답 풀이]  
①의 밑줄 친 ‘영수가 만든(영수가 음식을 만들다)’은 관계 관형절로, 이 절에서는 관형절 내의 목적어인 ‘음식’이 생략되었다.  
②의 밑줄 친 ‘영수가 한(영수가 질문을 하다)’은 관계 관형절로, 이 절에서는 관형절 내의 목적어인 ‘질문’이 생략되었다.  
④의 밑줄 친 ‘영수가 들은(영수가 소문을 듣다)’는 관계 관형절로, 이 절에서는 관형절 내의 목적어인 ‘소문’이 생략되었다.

[더 알아두기]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  
1. 관계 관형절: 관형절 내에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 내의 한 성분이 되는 문장을 말한다.  
예) 나는 집으로 가는 철수를 만났다. (⇨ 철수가 집으로 간다.)  
예) 건우가 내가 읽던 책을 가져갔다. (⇨ 내가 책을 읽었다.)  
2. 동격 관형절: 관형절 내에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고 다 나타나 있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 내의 성분인 될 수 없는 문장을 말한다. 따라서 동격 관형절 자체가 독립된 문장이 될 수 있다. 동격 관형절에는 종결 어미 없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짧은 관형절과, 종결 어미가 나온 다음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긴 관형절이 있다.  
예) 그가 애쓴 사실이 밝혀졌다. (어간+관형사형 어미 ⇨ 짧은 관형절)  
예) 그가 애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장+관형사형 어미 ⇨ 긴 관형절)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127쪽 관형절을 안은 문장,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

문 3.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정답] ③  
[정답 풀이]  
③의 밑줄 친 부분 ‘가겠다고’에 쓰인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오겠다’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② ‘먹겠다’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④ ‘도착하겠구나’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더 알아두기] 선어말 어미 -겠-의 용법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예)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예) 동생은 뉘시하려 가겠다고 한다. /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예)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예) 내가 와 주면 고맙겠구나. /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 내가 말해도 되겠니?  
5.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예) 별사람을 다 보겠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107쪽 선어말 어미 -겠-의 용법

문 4.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옐로카드(yellow card), 스테프(staff), 케이크(keik)
-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 ③ 냅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렛(chocolate)
-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정답] ①  
[정답 풀이]  
• 옐로카드(yellow card): ‘yellow’의 발음은 [jelou]이다.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예’로 적고, [ou]는 ‘오’로 적으므로, ‘옐로’로 표기한 것은 바르다.  
• 스테프(staff): ‘staff’의 발음은 [stæf]이다.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3항에 따르면, 어말 또는 자음 앞의 [f]는 ‘으’를 붙여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스테프’로 표기한 것은 바르다.  
• 케이크(keik):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1항에 따라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그러나 ‘cake [keik]’의 [k]는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파열음이 아닌, 이중 모음 다음에 오는 파열음이므로 ‘으’를 받쳐 적는다. 따라서 ‘케이크(keik)’로 표기한 것은 바르다.

[오답 풀이]

- ② 가디건(x) ⇨ 가디건(cardigan)(○): ‘cardigan’은 털로 짠 스웨터의 하나이다. 크림 전쟁 당시 이 옷을 즐겨 입은 영국의 가디건 백작(Earl of Cardigan)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디건’으로 적어야 한다.
- ③ 초콜렛(x) ⇨ 초콜릿(chocolate)(○): ‘초콜릿’의 ‘콜’은 영어 발음기호에 따르면 ‘칼’로 읽어야 하지만, ‘초코 바’, ‘초코 쿠키’ 등과 같이 둘째 음절은 ‘오’로 발음하는 경향을 존중하여 ‘콜’로 적도록 정하였다. 한편, ‘릿’은 발음 기호에 따라 ‘릿’이 아니라 ‘릿’으로 적어야 한다.
- ④ 팡파레(x) ⇨ 팡파르(fanfare)(○): ‘축하 의식이나 축제 때에 쓰는 트럼펫의 신호’를 뜻하는 프랑스어 ‘Fanfare’는 [fāfar]로 발음하며 한글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팡파르’로 적어야 한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421쪽 주의해야 할 외래어 및 인명, 지명 표기

- 었으나, 2015년부터 ‘ㄹ’이 탈락하지 않는 경우도 표준어로 인정함에 따라 ‘버리지 말아,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요’도 맞는 표기가 되었다. 따라서 ‘말아라’는 맞는 표기이다.
- ③ 두리몽실하게: ‘말이나 태도 따위가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를 뜻하는 ‘두리몽실하다’가 2011년에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두루몽술하다(○)/두리몽실하다(○)’ 모두 현재 표준어로 쓰이고 있다.
- ④ 주책스러운: ‘주책이다’는 비표준형이었으나, ‘주책’의 의미로서 ‘일정한 뜻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2016년에 명사 ‘주책’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어근 ‘주책’에 접사 ‘스럽다’가 결합된 어휘 ‘주책스럽다’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378쪽 표준어 규정, 잘못 적기 쉬운 말

문 5.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누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 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퍼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정답 풀이]

㉢ ‘꽃대’는 ‘깃대’를 의미하고, ㉠, ㉡, ㉣은 ‘깃발’을 의미한다. 이 시는 중심 이미지인 ‘깃발’에 ‘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마음’이라는 5개의 참신한 보조 관념이 연결된 확장 은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곧 ‘깃발’은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으로, ‘푸른 해원’이라는 이상향을 동경하는 ‘순정’을 상징하며, ‘애수’와 ‘마음’은 이상향에 끝내 도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좌절의 표상이다.

[더 알아두기] 유치환, <깃발>

이 시는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을 ‘깃발’, 이상 세계에 갈 수 없는 한계를 ‘꽃대’에 ‘깃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설정하여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노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사랑, 그리움, 비애’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사물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반대로 ‘깃발’이라는 구체적 사물을 비유를 통해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 애수, 마음’ 등으로 관념화하여 인간 존재의 모순과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 [정채영 국어] 3권 독해 242쪽 유치환, <깃발>

문 6.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 ③ 두리몽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 ② 여직껏(x) ⇨ 여태껏/입때껏(○): ‘여태(지금까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은 ‘여태껏’ 또는 ‘입때껏’이다.
- ④ 그는 여태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 여태껏 뭐 하다 이 밤중에 숙제를 하는 거냐?

[오답 풀이]

① 말아라: 과거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는 ‘버리지 마,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요’만 맞는 표기로 인정되

문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다.
-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정답] ②

[정답 풀이]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둘 다 쓰이는데, 의미상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면 동사이고,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이다. ②는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 ①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 ③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 ④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더 알아두기] 동사와 형용사로 둘 다 쓰이는 단어: ‘있다’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 그는 내일 집에 <u>있다고</u> 했다</li> <li>②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 <u>만</u>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u>그냥 있어라</u>.</li> <li>③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 <u>가만히 있어라</u>.</li> <li>④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 <u>앞으로</u> 사흘만 <u>있으면</u> 추석이다.</li> </ul>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 나는 신이 <u>있다고</u> 믿는다. / 날지 못하는 새도 <u>있다</u>.</li> <li>②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이다. ㉡ 방 안에 사람이 <u>있다</u>.</li> <li>③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 ㉢ <u>나에게는</u>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u>좀 있었다</u>. / <u>그녀에게</u> 선택권이 <u>있다</u>.</li> <li>④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 그는 대기업의 <u>과장으로</u> <u>있다</u>.</li> </ul>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101쪽 동사와 형용사로 둘 다 쓰이는 단어

문 8.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어쌍 - 공북벌레
- ② 마구간 - 인삿말
- ③ 공깃밥 - 백깃장
- ④ 도맷값 - 머릿털

[정답] ②  
[정답 풀이]  
• 마구간(×) ⇨ 마구간(○): ‘말을 기르는 곳’이라는 뜻의 ‘마구간(馬廄間)’의 발음은 [마 : 구간]인데, 한자어 ‘마구(馬廄)’와 한자어 ‘간(間)’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 인사말(×) ⇨ 인사말(○): ‘인사와 ‘말’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다. 이에 따라 사이시옷 없이 ‘인사말’로 적는 것이 바르다.  
[오답 풀이]  
① 봉어빵(×) ⇨ 봉어빵(○): ‘봉어 모양의 틀에 묶은 밀가루 반죽과 팥소를 넣어 만든 풀빵’을 이르는 ‘봉어빵’의 발음은 [봉 : 어빵]이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므로 ‘봉어빵’으로 적는 것이 바르다.  
③ 백지장(×) ⇨ 백지장(○): ‘하얀 종이의 낱장’이라는 뜻의 ‘백지장(白紙張)’의 발음은 [백지장]인데, 한자어 ‘백지(白紙)’와 한자어 ‘장(張)’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④ 머리털(×) ⇨ 머리털(○): ‘머리털’의 표준 발음은 [머리털]이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므로 ‘머리털’로 적는 것이 바르다.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378쪽 표준어 규정, 잘못 적기 쉬운 말

문 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 ㉠ )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었지요. ( ㉡ )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었지요. ( ㉢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 )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      |      |      |
|--------|------|------|------|
| ㉠      | ㉡    | ㉢    | ㉣    |
| ① 그런데  | 그랬더니 | 그래   | 그러니까 |
| ② 그런데  | 그래   | 그랬더니 | 그러니까 |
| ③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래   | 그러니까 |
| ④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러니까 | 그래   |

[정답] ③  
[정답 풀이]  
㉠: ‘나’는 눈을 뜨고 혹시 ‘아저씨가 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남자석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후에 ‘아저씨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하,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에는 선행절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 주는 접속어 ‘그랬더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기도하러 온 줄 알았던 ‘아저씨가 기도를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에는 이야기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때 쓰는 접속어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나’는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손을 흔들었으므로 ㉢에는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어 ‘그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나’의 손을 흔드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에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가 될 때 쓰는 접속어 ‘그러니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③ ‘그랬더니-그런데-그래-그러니까’의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더 알아두기]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봉건적 윤리와 인간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머니와 그녀를 연모하는 사랑손님 간의 사랑과 이별을 어린아이의 맑고 깨끗한 눈으로 순수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가치관이 전환되는 과도기였지만, 봉건적 가치관의 잔재로 재혼을 부정적으로 보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천진난만한 ‘나’의 행동이 두 어른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어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설렘과 망설임을 어린아이다운 감각과 직관으로 선명하게 포착하는 등 어린아이의 시선을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문 10.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울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 ‘끼룩거리면서’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자유로운 새 떼들이 이 세상에 대해 아유와 조롱을 한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더 알아두기]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980년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대표적인 시로,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애국가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짧은 순간의 묘사를 통해, 80년대의 폭압적 현실 상황에 대한 환멸과 극도의 좌절감을 풍자적 수법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불꺼진 캄캄한 극장’은 암흑처럼 어둡고 침침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화면에 비치는 ‘새떼들의 자유로운 비상을 바라보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잠깐이나마 가져보지만, 애국가가 끝난 후에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진다. 이 시에서는 ‘새와 ‘우리’의 대조적인 상황 설정이 돋보이기도 하는데, 즉 ‘새는 비상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다가, 결국 새들처럼 세상 밖 어딘가로 떠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다.

문 11.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를 때에 쓸 수 있는 말이다. 손님이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에 따르면 손님이 여성 종업원에게 ‘이모’라는 부름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아주머니’, ‘아가씨’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다.  
[오답 풀이]  
② 고유어 ‘통닭’이 외래어 ‘치킨’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아침'은 '아침 겸 점심으로 먹는 밥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이는 새로운 어휘가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④ 금기어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완곡어 '마마도' 쓰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는 어휘가 점차 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 ① 목청, 'ㅇ'과 'ㅎ'  
② 윗잇몸, "과" "  
③ 셴입천장, "과" " "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ㅈ'

② 'ㄴ'은 기본자이고 'ㄷ'은 가획자이다. 'ㄴ'과 'ㄷ'은 둘 다 '잇몸소리'로 혀끝과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따라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른 것의 용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ㅇ'은 기본자이고 'ㅎ'은 가획자이다. 그러나 'ㅇ'은 여린입천장에서 소리가 나고, 'ㅎ'은 목청에서 소리가 나므로 두 음운의 조음 위치는 다르다.  
③ 'ㄱ'은 기본자이고 'ㅋ'은 가획자이다. 그러나 'ㄱ'과 'ㅋ' 모두 셴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린입천장에서 소리가 난다.  
④ 'ㅅ'은 기본자이고 'ㅈ'은 가획자이다. 그러나 'ㅅ'은 윗잇몸에서 소리가 나고, 'ㅈ'은 셴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므로 두 음운의 조음 위치는 다르다.

[더 알아두기] 1. 훈민정음의 자음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제자 원리
아음(牙音)	ㄱ	ㅋ	ㅇ	象舌根閉喉之形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본됨.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象舌附上齶之形상설부상악지형):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본됨.
순음(唇音)	ㅁ	ㅂ, ㅃ		象口形상구형): 입의 모양 본됨.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象齒形상치형): 이의 모양 본됨.
후음(喉音)	ㅇ	ㅎ, ㅋ		象喉形상후형): 목구멍의 모양 본됨.

[더 알아두기] 2.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양순음)		잇몸 소리 (치조음)		셴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목청 소리 (후음)	
		예사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ㅂ	ㅃ	ㄷ	ㄸ			ㄱ	ㄲ		
		ㅍ	ㅑ	ㅌ	ㅎ			ㅋ	ㅋ		
		ㅈ	ㅉ			ㅅ	ㅆ				
	파찰음	ㅁ					ㄴ	ㄷ			
		ㅂ							ㄱ		
		ㅅ									ㅎ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ㄹ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192쪽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44쪽 국어의 자음 체계

문 13.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②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③ 자기가 먹을 만 큼 먹어라. [의존 명사]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④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⑤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동사]

[정답] ④

[정답 풀이]

④ 굳어(형용사)(x) ⇨ [동사](o) / 굳고(동사)(x) ⇨ [형용사](o):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움직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니' 또는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나 청유형 어미 '-자',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려'나 '-리', 진행형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굳다'는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쓰이는데,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의 '굳어'는 '혀가 굳는다(o)'로 활용 가능하므로 동사이고,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의 '굳고'는 '사람됨이 굳는다(x)'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 ① 부사와 명사의 구별은 조사의 결합 여부로 판별할 수 있다. 뒤에 격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뒤의 용언을 꾸며 주면 부사이다. "오늘이"의 '오늘'은 조사가 결합되었으므로 명사이고, "오늘 할 일"의 '오늘'은 뒤의 '할'을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② "먹을 만큼"에서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고, "철수만큼"에서 '만큼'은 체언의 바로 뒤에 붙어 있으므로 '조사'이다.  
③ 겹미사 '-적'이 붙는 말은 뒤에 조사가 오면 명사이고(-적+조사), 뒤의 용언을 꾸며 주면 부사이며(-적+용언), 뒤의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사이다(-적+체언).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의 '비교적'은 '편리하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고, "비교적인 관점"의 '비교적'은 조사 '인'이 붙었으므로 명사이다.

[더 알아두기] 품사의 통용

1. 의존 명사와 조사: '만큼'이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으면 의존 명사이고, 체언 다음에 쓰이면 조사이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으므로 의존 명사)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체언 다음에 쓰이므로 조사)  
2. 부사와 감탄사: 뒤의 용언을 꾸며 주면 부사이고, 단독으로 쓰여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면 감탄사이다.  
•오늘 날씨는 정말 덥다. (용언 '덥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  
•약속 지켜야 돼, 정말!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므로 감탄사)  
3. 수사와 관형사: 조사가 붙거나 붙을 수 있으면 수사이고, 조사가 붙지 않고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사이다.  
•학생 다섯이 걸어가고 있다. (조사가 붙었으므로 수사)  
•다섯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조사가 붙지 않고 뒤의 체언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  
4. 겹미사 '-적'이 붙는 말: 뒤에 조사가 오면 명사이고(-적+조사), 뒤의 용언을 꾸며 주면 부사이며(-적+용언), 뒤의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사이다(-적+체언).  
•그녀는 현실적이다. (조사 '-이다'가 붙었으므로 명사)  
•비교적 좋은 편이다. ('좋은'이라는 용언을 꾸며 주므로 부사)  
•현실적 사고의 소유자이다. ('사고'라는 체언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88쪽 품사의 통용

문 14.<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①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판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 깊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걸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정답 풀이]  
㉠ '나무'는 이 도령을 만났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이 도령을 비유한 표현이다. 나머지는 춘향이가 죽어서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 '깊은 물'은 '천 길 땅 밑을'이라는 시적 정황을 고려하면 '저승의 춘향'을 의미할 수 있다.  
③ ㉢: '구름'은 '도솔천의 하늘'이라는 시적 정황을 고려하면 '극락의 춘향'을 의미할 수 있다.  
④ ㉣: '소나기'는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붓는다는 시적 정황을 고려하면 '죽은 후에도 모습이 변하여 임을 찾아가는 춘향'임을 알 수 있다.

[더 알아두기] 서정주, <춘향유문>  
이 작품은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여 죽은 직전에 있는 춘향이 이 도령에게 유언을 하는 듯한 형식으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1연의 안녕히 계세요는 3연의 저승과 만나 춘향의 이별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저승으로 나타나는 4연의 천길 땅 밑이나 도솔천도 도련님의 걸이라는 말에서 변함 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연에서는 춘향이 자신이 죽은 후에 검은 물에서 구름, 구름에서 비가 되는 윤회의 과정을 거쳐 거기에 도달하겠다고 함으로써 둘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정채영 국어] 문학 특강 75쪽 서정주, 춘향유문

문 1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바짝 즌 찌개를 다시 끓였다.
-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라네.
- ③ 얇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정답] ③  
[정답 풀이]  
③ 곧바라야(x) ⇨ 곧발라야(○):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곧고 바르다."라는 뜻의 형용사 '곧바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으로 '곧발라/곧바르나' 등으로 활용한다.  
[오답 풀이]  
① 노라네(○): '노랗다'는 'ㅎ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ㅎ 불규칙 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노랗다, 동그랗다, 커다랗다' 등 모든 'ㅎ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에 적용된다. 따라서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라네/노랗네" 모두 맞춤법에 맞는 문장이다.  
② 존(○):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줄다'는 '르' 탈락 용언이다. 어간 끝 받침 'ㄹ'이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라' 등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으므로 '줄아/조니/존/조오'처럼 활용한다. 따라서 "바짝 즌 찌개를 다시 끓였다."라는 문장에서 '존'의 표기는 바르다.  
④ 저러나(○): '저렇다'는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저와 같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ㅎ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저래/저러니/저랄소/저러나' 등으로 활용하므로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라는 문장에서 '저러나'의 표기는 바르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110쪽 용언의 활용

문 16.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1>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보기 2>  
(가)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라)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라) - (나) - (다)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핵심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 1> 구글의 독감 관련 검색어 연구 ⇨ [검색어]  
(가)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으로 환자 수 예측 ⇨ [검색량][환자 수 예측]  
(나) 이러한 패턴으로 검색 빈도수와 환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 발견 ⇨ [패턴][검색 빈도와 환자 수의 관계]  
(다)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를 더하면 보건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구글의 주장 ⇨ [주장]  
(라) 독감 시즌마다 독감 관련 특정 검색어 패턴 증가 ⇨ [검색어][패턴]  
<보기 1>은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라)는 '검색어 패턴이 증가한다는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므로 <보기 1>의 뒤에 와야 한다. 그 결과로 검색어 '패턴' 증가를 알게 되었는데 (나)는 이러한 '패턴'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라)의 뒤에 와야 한다.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으로 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는 (나)와 유사한 정보인데, '다시 말해'로 시작하므로 (나)의 뒤에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다)의 '이'는 지시하는 내용은 (가)의 검색량으로 환자 수를 예측한다는 것이므로 (가)의 뒤에 와야 하며,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를 더하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구글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글의 순서를 잡는 것이 바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글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④ (라) - (나) - (가) - (다)와 같다.

문 17. <보기>의 ㉠~㉣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꼭두쇠'는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꼭두쇠는 남사당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단원 가운데 ㉠ 규율을 어긴 단원에 대해 형벌을 명령하는 것도 꼭두쇠이다. 꼭두쇠가 ㉡ 노쇠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단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단원들의 ㉢ 추대로 새로운 꼭두쇠를 ㉣ 선출한다.

- ① ㉠ - 規律                      ② ㉡ - 老衰                      ③ ㉢ - 推戴                      ④ ㉣ - 先出

[정답] ④  
[정답 풀이]  
㉠ '여럿 가운데서 골라내다'는 뜻을 가지는 '선출'은 '選出(가릴 선, 날 출)'로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 '先出(먼저 선, 날 출)'은 과일,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만물'과 같은 말이다.  
[오답 풀이]  
① 規律[법 규, 법 율(률)]: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  
② 老衰[늙을 노(로), 쇠할 쇠]: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음.  
③ 推戴(웁길 추, 일 대): 뒷사람으로 떠받들.

★ [정채영 국어] 2권 어휘 210쪽 한자어의 독음과 뜻

문 18. <보기>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러한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한 실제적 기준은 호흡이었다.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한배의 틀이 된 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방법을 선인들은 양식척(量息尺) 이라고 불렀다. ‘숨을 헤아리는 자(尺)’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방법은 우리 음악에서 한배와 이에 근거한 박절을 있게 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시계가 없었던 당시에 선인들은 건강한 사람의 맥박의 6회 땀을 한 호흡(一息)으로 계산하여 1박은 그 반인 3맥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 호흡을 2박으로 하여 박자와 한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 서양인들은 우리와 달리 음악적 시간을 심장의 고동에서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맥박을 기준으로 하여 템포를 정하였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분에 70회 전후로 맥박이 뛰는다고 한다. 이에 의해 그들은 맥박 1회를 1박의 기준으로 하였고, 1분간에 70박 정도 연주하는 속도를 그들 템포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래서 1분간 울리는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빠르기가 바로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인 안단테로 이들의 기준적 빠르기 말이 되었다.

- ①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③ 음악에서 곡조의 느리고 빠른 정도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가를 화제로 제시하여 우리 음악은 ‘호흡’으로, 서양 음악은 ‘맥박’으로 잡고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제시된 글의 전반부는 우리 음악의 기준인 호흡에 대하여, ‘반면’ 이후의 후반부는 서양 음악의 기준인 맥박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장을 제시한 뒤 타당성을 증명하는 글이 아니라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② 곡조의 느리고 빠른 정도의 기준, 즉 ‘호흡’과 ‘맥박’이 서로 대립되는 속성을 가진 견해는 아니며, 또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전반부에서 우리 음악의 기준에 대하여, 후반부에서 서양 음악의 기준에 대하여 먼저 제시한 후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였으므로 구체적 사례를 먼저 제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이 글에서는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문 19.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디어의 첫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겨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이다. 독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제도, 또는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기억의 관습에 가한 변화는 인쇄술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업적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당연히 책이 양산되고 책값 역시 저렴해졌을 뿐 아니라,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럽게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정답] ①  
[정답 풀이]  
<보기>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인쇄술의 발전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로 학교 제도와 기억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을 들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인쇄술의 발달로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면서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음을 말하고 있다. 즉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토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추론하면 ‘독점적인 학설이 나 함파의 전횡이 줄어든 것과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사라지게 된 것’이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첫 번째 문단에서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고 했으므로 교사의 권위가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두 번째 문단에서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으므로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책들이 출판되었다고 했을 뿐, 저자의 권위가 높아졌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글의 정보로는 추론할 수 없다. 또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으므로,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문 20.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정답] ④  
[정답 풀이]  
④ ‘단순호치(丹脣皓齒)’는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유사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 ‘주순호치, 호치단순’ 등이 있다. 나머지는 ‘절친한 친구’와 관련된 사자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귀음을 이르는 말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금란계, 금란교, 금란지교, 금란지의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더 알아두기] 주제별 한자 성어		
절세의 미인	① 丹脣皓齒(단순호치)	② 傾城之色(경성지색)
	③ 絕世佳人(절세佳人)	④ 傾國之美(경국지미)
	⑤ 明眸皓齒(명모호치)	⑥ 絕世美人(절세미인)
	⑦ 月下美人(월하미인)	⑧ 花容月態(화용월태)
절친한 친구	① 芝蘭之交(지란지교)	② 管鮑之交(관포지교)
	③ 金蘭之契(금란지계)	④ 莫逆之友(막역지우)
	⑤ 刎頸之交(문경지교)	⑥ 斷金之交(단금지교)
	⑦ 竹馬之友(죽마지우)	⑧ 竹馬故友(죽마고우)
	⑨ 竹馬舊誼(죽마구의)	⑩ 蔥竹之交(총죽지교)
	⑪ 肝膽相照(간담상조)	⑫ 金石之交(금석지교)
	⑬ 伯牙絕絃(백야절현)	⑭ 水魚之交(수어지교)

★ [정채영 국어] 2권 어휘 312쪽 주제별 한자 성어, 절세의 미인, 절친한 친구